

최민 상임활동가

7월은 아직 한노보연과 데면데면한 여러 회원과 친해지려고 노력한 시간이었어요. 먼저 7월 1일 「신입회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한노보연은 몇 년 전부터, 매년 한두 차례 ‘신입회원의 날’을 갖고 있어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연구소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신규 노무사 대상 노동자 건강권 교육을 통해, 연구 활동 중 만나서, 등산모임에 관심 있어서, 상병수당에 관심 있어서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가입하신 신입회원 12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상임활동가와 운영위원들도 기운을 듬뿍 받았습시다.

「신입회원의 날」 외에 올해 새로 ‘연구소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도 진행해봤어요. “당신의 고민이 연구소의 과제가 된다”는 제목 아래, 7월 13일, 16일에 각각 연구활동과 현장활동을 주제로 두 번에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연구’ 파트는 연구소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연구소 현장연구에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자, 의료인, 대학원생, 노무사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내년에는 연구 시작 전에 꼭 더 많은 회원에게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장활동’ 파트는 ‘현장을 읽다 나누다 잇다’라는 제목으로 현장 교육, 현안 대응, 현장 연구 활동에 연구소가 어떻게 함께 해 왔는지 소개하고, 앞으로 자기 현장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경남, 부산 현장 회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연구소와 함께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는데요, 연구소 상임과의 연결뿐 아니라 회원들끼리의 연결과 소통, 네트워크에 대한 바람도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초창기 회원들의 유대감이 높기로 유명했는데요,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회원간 연결이 촘촘해지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들이 형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런 모임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전국 조직이다 보니 온라인 행사의 장점도 있지만, 내년에는 연구소를 소개하는 자리는 오프라인 모임을 조금은 늘려보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